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7호

2022.06.10(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7차 지부교섭_2차 제시안 제출]

의미없는 제시안!

<2차 제시안>

1. 2022년 인금인상 : 추후 제시
2. 산업전환협약 : 추후 제시
3. 위험성평가
 - ① 노동조합(지회, 분회)과 공동으로 연1회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②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및 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발생,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한정)
 - ③ 다음 각호의 경우 노사 동수의 위험성 평가 실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 결정.
 - 해당작업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

가 수당 청구권 보장

- 사업장 관행상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근무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책 변경 시 조합과 충분한 협의르르 거쳐 진행한다.
- 5. 재정자립기금 기준 조정 : 추후 제시

2주 동안 준비한 제시안이 고작 이거?

6월 9일(목)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7차 교섭은 의미없는 제시안만 덩그러니 남았다. 지난주를 쉬면서 2주 만에 열린 교섭이었는데, 사측이 내놓은 제시안은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추후 제시’, ‘현재 관행 유지’를 제시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나마 제출한 위험성평가도 중앙교섭 제시안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노정교섭 쟁취와 2022임단투 승리를 위해 20만 총파업을 수위 높게 준비하고 있다. 지부교섭이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7차 교섭 속기록

사실상 제시 안한 걸로 보면 되죠?

사 : 노사가 어려운 자리 마련한 만큼 협업하여 원만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노 : 지난주 건너뛰고 2주만에 본다. 2주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회사가 심도있는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교섭은 미비한 안이 제출됐다. 지부교섭은 중앙교섭 눈치보지말고 제시안을 빨리 제출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 오늘 제시안 있으면 제출해달라.

[제시안 제출]

사 : 산업전환은 사업장별로 기준에 되어 있는 합의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곳도 있다. 각 사별 입장 차가 크다. 양해바란다. 위험성평가는 중앙교섭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중앙교섭 수준의 제시 자체가 각 사마다 부담이었는데, 그만큼 노력했다는 의미로 받아달라. 퇴직년도 연차에 대해서 아직도 각 사마다 의견 차이가 커서 현재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제시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시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으면 한다.

노 : 산업전환은 어떤 내용에서 차이가 큰가?

사 : 각 사마다 입장을 따로 설명하긴 어렵고, 산업전환협약 실행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된 의견 차이이다.

노 : 기구 만드는 것에 의견 차이가 있나?

사 :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노 :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는 사

실상 제시를 안한 걸로 보면 되죠?

사 : 제시한 것 자체에 의미를 뒀으면 한다.

노 : 더 논의할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중앙교섭만 따라가는 것 같다. 중앙교섭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제시해서 지부교섭 조속히 가자고 누차 얘기했다. 근데 계속 중앙교섭 따라간다. 작년에 4시간 파업했는데 올해는 20만 총파업을 더 강한 수위로 준비하고 있다. 지부교섭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투쟁 수위를 논의해볼 수 있다. 차기에는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면 좋겠다.

사 : 좀 더 빨리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노 : 위험성평가는 중앙교섭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전환협약 제출 못하고 있다. 산업전환협약은 작년에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올해만큼은 전체 사업장이 동일하게 합의하고자 한다. 지부교섭이 진전이 있으면 우리도 투쟁수위를 논의해볼 수 있는데 작년과 동일한 입장이면 우리도 곤란하다. 금속노조는 노정교섭 과제도 있어서 작년 보다 센 수위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부교섭에서 진전이 있어야 지부도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

사 : 작년 합의한 내용이 회사별로 차이가 커서 공동 기구 논의에 따라가기 어렵다. 본사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르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